정책에 녹인 나눔·돌봄 '광주정신' 생활 속으로

돌봄 공공성·책임성 극대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 확대 '최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주목

광주시가 나눔과 돌봄을 통해 시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는 '광주정신'을 정책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1980년 5월 신군부에 항거해 싸운 시민군과 '나눔과 돌봄'을 몸소 실천한 평범한 시민들이야말로 '광주정신'을 상징한다. 광주시는 평범한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연대정신을 녹인 정책들을 통해 '광주정신'을 생활 속에 뿌리내리게 한다는 복안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다움 통합돌봄', '최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 '육아품앗이 지원사업', '산단근로자 조식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바로 광주정신에서 시작됐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평범한 광주시민이 주먹밥을 나눠주며 보여줬던 광주정신은 광주형 보편 복지 제도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재현됐다.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의 책무'로 여긴 것이다.

광주시는 자치구를 비롯해 민간, 시의회 등과 함께 공공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4월1일 서비스를 시작해 3만건의 가정방문, 1만3천871명에게 2만6천건의 맞춤 돌봄을 지원했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24시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서비스 사업'이 오는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3개 형태로 제공된다.

광주지역의 경우 낮활동 서비스(주간 개별·그룹형)를 이용하는 50여명이 통합돌봄 사업으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한편, 가족 역시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이웃집 긴급 육아 품앗이 '삼삼오오 이웃돌봄'도 광주정신이 잘 녹아있다.

광주시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첫 추진하는 '삼삼오오 이웃돌봄'은 근접한 생활권 내에서 거주하며 믿을 수 있는 이웃끼리 필요할 때 서로 맞돌봄을 통해 기존 시설돌봄으로 해결되지 않는 틈새 돌봄을 강화한다.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산단근로자 조식지원 사업'은 전국 최초로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반값 아침한끼'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하남산단에 근로자 조식지원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지난 달 첨단산단 광주테크노파크 별관에 '간편한 아침 한끼' 2호점을 열어 간편한 아침 한끼를 시중 가격의 50% 정도의 저렴한 가격(2천-3천원)에 제공한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정신은 평범한 시민이 보여준 나눔·돌봄에서 비롯됐고 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와 행정이 제도와 정책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광주시는 그 정신을 되살려 제도로 뒷받침하고 시정방향도 언제나 시민을 더 자유롭게 하는 데 두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건강하세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광주 북구 양산호수공원에서 열린 '사랑의 밥차'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센터 직원과 한빛유치원 아이들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김애리 기자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편의시설 설치 박차

道, 이달 초까지 67개 경기장 임시 화장실 등 완료

전남도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관람객 편의를 위해 경기장 주변 편의시설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체전 경기가 열리는 목포 등 22개 시·군, 67개 경기장에 텐트, 컨테이너, 임시 화장실, 안내 표지판, 안내 현수막 등 2천707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텐트와 컨테이너는 경기장 안내소, 자원봉사센터, 경기운영본부, 선수단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고 인기 종목 경기장 관람객 밀집도를 감안해 임시 화장실을 대폭 설치할 계획이다.

경기가 열리는 곳에 경기장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관람객이 쉽게 찾도록 하는 등 체전 분위기를 고조시킬 방침이다.

전남도는 경기가 열리는 시·군, 체육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67개 경기장 주변 편의시설 설치 이상 여부를 최종 점검하고 이달 초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양시원기자

전남 경로당 실내공기질 검사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7일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과 어르신 건강 보호를 위한 도내 경로당 실내공기질 검사 서비스를 8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위치한 9천263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에 설치된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실내공기질을 측정·평가해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가 이뤄진 시설 중 개선 조치가 필요했던 시설을 포함해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선정할 예정이다. 측정 항목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부유세균, 곰팡이, 온도, 습도다. /양시원 기자

전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농림부 공모 선정…11개 시·군 6천600명 대상 희망자 모집

전남도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공모에 전남 11개 시·군이 선정돼 건강검진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공모에서는 전국 50개 시·군, 여성 농업인 3만여명이 선정됐다.

이 중 전남도는 11개 시·군, 6천600여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 농업인이 혜택을 받게 됐다.

시·군별 검진 인원은 ▲해남군 1천명 ▲광양시·영광군·장성군 각 700명 ▲순천시·곡성군·영암군 각 600명 ▲고흥군·강진군 각 500명 ▲나주시 400명 ▲화순군 300명이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등이다. 농작업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실시한다.

검진 대상자는 11개 시·군 51세부터 70세(1954년 1월1일-1973년 12월31일) 중 짝수년도 출생 여성 농업인이다.

검진 비용은 1인당 22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10%다. 사업에 선정된 11개 시·군 중 순천시·나주시·광양시·곡성군·화순군·해남군·영암군·영광군·장성군은 자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곡성군만 검진 버스를 이용한 이동검진형 방식을 지원한다. 나머지 10개 시·군은 검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검진형 방식이다.

시·군과 검진 의료기관이 협의해 지난달부터 건강검진을 시행 중이며 매달 1-20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검진 대상자를 상시 모집한다.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 문자 알림을 받은 뒤 검진받으면 된다.

강하춘 농업정책과장은 "특수건강검진 지원으로 농작업 질환에 취약한 여성 농업인의 건강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다"며 "2025년에는 22개 전 시·군이 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업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남성 농업인까지 특수건강검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양시원 기자

"기업·기관, 가족친화인증 참여하세요"

22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서 설명회 심사 기준 안내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7일 "가족친화인증 심사원(한국경영인증원)과 공동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가족친화인증 설명회에서는 가족친화인증 심사 기준과 평가 항목을 집중 설명하고 참석 기업·기관에 다양한 가족친화인증 적격 검증, 현장 심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은 21일 오후 3시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현장 당일 접수도 가능하며 총 100여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한국경영인증원)는 2008년부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은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20점)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하고 있다. 신규 인증 기준 점수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70점, 중소기업 60점이며 인증 심사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100만원, 중소기업은 무료다.

광주에서는 지난해까지 총 130개 기업·기관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으며 다양한 가족친화경영 활동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